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여성혐오살인에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 해시태그 운동, 니우나메노스

김보영

2016년 10월 8일, 하룻길에 갭단에 납치당한 아르헨티나의 16세 소녀 루시아 페레스가 비인간적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유기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 전역이 분노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2015년부터 활발히 진행되던 반(反)젠더폭력 해시태그 운동 니우나메노스(#NiUnaMenos: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는 뜻이다)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인 10월 19일에는 검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여성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젠더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검은 수요일’로 명명된 이날의 시위는 아르헨티나 사상 최초의 여성 파업과 5월광장을 향한 행진으로 구성되었다. 파업 시위에 동참하는 전국의 여성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생업을 멈추었고, 오벨리스크 앞에 모인 여성은 5월광장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Ni una menos), ‘우리는 살고 싶다’(Vivas nos queremos)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성 폭력을 규탄했고, 같은 날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다른 국가의 여성도 연대 시위를 벌였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UN 여성기구 또한 10월 21일 성명을 발표해 각지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연대를 표하고, 정책 등 모든 층위에서의 행동을 촉구했다. 젠더폭력을 규탄하는 해

시태그 운동과 시위는 현재까지도 산발적으로 중남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페레스의 죽음이 이렇게 큰 공분을 자아낸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치안 문제가 있다. 2016년 초 컨설팅 업체 아날로히아가 아르헨티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10대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¹⁾ 치안(22.6%)이 인플레이션(20.3%)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불안정한 치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해시태그 #NiUnaMenos 홍보 그림(출처: <http://niunamemos.com.ar>)

분노는 일반적인 치안 불안에서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살인이 만연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인 현실에서 촉발된 것이다. 비영리단체 카사 델 엔쿠엔트로(Casa del Encuentro)의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2008년에서 2015에 이르는 기간 동안 2,04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²⁾ 30시간마다 여성 한 명이 살해당하는 꼴이다. 2012년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성살해율은 줄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2015년 6월 3일 20만 명이 참석한 대형 시위가 열려 ‘여성 살해는 그만하라’(Basta de femicidios)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우는 등 분노가 고조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성 살해에 관한 브라질 FLACSO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³⁾ 전 세계에서 여성살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 10개국⁴⁾ 중 7개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였다. 페레스

1) 「Inseguridad, inflación y corrupción, las principales preocupaciones de los argentinos」, Infobae, 2016. 2. 29. <http://www.infobae.com/2016/02/29/1793740-inseguridad-inflacion-y-corrupcion-las-principales-preocupaciones-los-argentinos>

2) 「Femicidios: en casi 8 años, 2041 mujeres fueron asesinadas por la violencia machista」, 『La Voz』, 2015.11.24. (<http://www.lavoz.com.ar/ciudadanos/femicidios-en-casi-8-anos-2041-mujeres-fueron-asesinadas-por-la-violencia-machista>).

3) Julio Jacobo Waiselfisz, 『Mapa da Violência 2015: Homicídio de Mulheres No Brasil』, Flasco, 2015.



오벨리스코 앞에 결집한 10월 19일 ‘검은 시위’ 참가자(출처: <http://www.lanacion.com.ar>)

사건이 발생한 10월 한 달 동안 외신에 보도된 사건 중 몇 건만 들추어도 참혹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두 명의 여성이 강간 살해당한 채 서류가방 안에서 발견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세 명이 살해당했다. 페루에서는 강간 살해당한 젊은 임신부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리에 ‘창녀’라고 적혀있었다. 여성 폭력에 저항하는 활동가도 목숨을 위협받는다. 아르헨티나의 검은 시위의 해시태그 메인 구호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의 창시자 또한 살해당했다. 멕시코의 시인이자 활동가 수사나 차베스 카스티요가 1995년 고안한 문구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고 단 한 명도 더 죽어서는 안 된다’(ni una mujer menos, ni una muerta más)는 라틴아메리카 여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상징하는 문구가 되었지만, 정작 활발하게 활동하던 수사는 2011년 살해당했다. 그 해 멕시코에서 살해당한 젠더폭력 관련 활동가로는 세 번째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토록 만연한 여성 대상 폭력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

4) 순서대로 엘 살바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몰도바, 수리남, 라트비아, 푸에르토리코. 한국은 35위에 랭크되었다.

아를 포함한 중남미 16개국이 여성 살해를 문제로 인식하고 특별 범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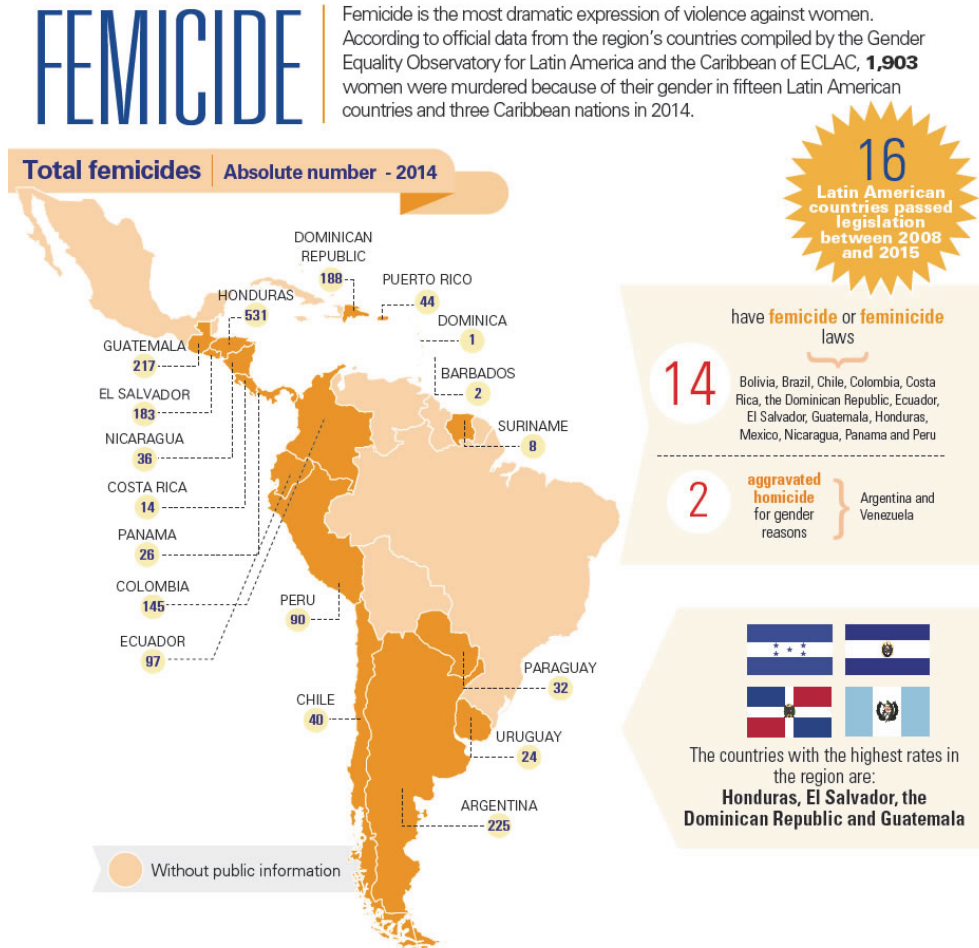
칠레, 발파라이소의 시위(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

취급한다는 내용을 입법했지만 전혀 범죄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2011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 여성 살해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비율은 77%에 달했고, 텔레수르(Telesur)의 보도에 의하면 멕시코의 여성 대상 중오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95%에 달한다.⁵⁾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관련 시민단체도 다양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까운 시일 내에 근절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중남미에서 이토록 여성 살해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중남미의 전반적인 폭력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 대상 폭력이 빈번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혹은 전 세계 살인 피해자 중 80%가 남성인데, 왜 여성 살해를 특별히 조명해야 하냐고 반문할지도 모

5) 「La batalla de Latinoamérica contra el feminicidio」, 『TelesurTV』, 2016.10.19. (<http://www.telesurtv.net/news/La-batalla-de-Latinoamerica-contra-el-feminicidio-20160706-0059.html>).

른다. 그렇다면 여성 살해가 만연한 이유와 더불어 왜 여성 살해를 문제



2014년 라틴아메리카 여성살해 통계(출처: ECLAC's Gender Equality Observatory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cepal.org/en/infographics/femicide>)

삼아야 하는지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용어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성 살해를 일컫는 단어 페미사이드(femicide)는 여성(female)과 살인(homicide)의 합성어로, 다이애나 러셀 박사가 197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국제재판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이애나 러셀은 이후 질 래드포드와 집필한 저서 『여성 살해의 정치학』(Femicide. The Politics of Woman Killing)을 통해 여성 살해의 개념을 확산시켰다. 이후 이 용어 대한 정의

는 여러 번 수정되고, 또 보완되었지만, 대체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핵심에 두었다. 즉,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타자로 상정하고 동등한 인간 ‘주체’로서 대하지 않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살인이 페미사이드인 것이다.

가부장제를 공고히 떠받치는 여성혐오의 기제는, 여성은 어떠한 한 다는 성역할을 규정하고(예컨대, 순종할 것, 친절할 것, 순결할 것, 아름다울 것, 남성보다 우월하지 않을 것, 고운 언어를 사용할 것, 희생하는 어머니일 것, 사적 영역을 책임질 것, 남성 성욕의 해소 대상일 것 등), 이를 충실히 따르는 여성에게는 보상을, 따르지 않는 여성에게는 보복을 하는 이중 경로로 작동한다. 여성혐오에 뿌리를 둔 폭력은 여성의 신체, 정신, 감정,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극단적으로는 살인으로 나타난다. 중세의 마녀사냥, 창녀혐오살인, 강간당한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선별살해 등도 여성 살해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여성 살해는 남편,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자행되고, 이를 ‘사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공고한 전통으로 인해 적절한 국가 권력의 중재와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단어에서 여성 살해를 떼어내어 호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살해를 일반적인 살인에 포함시키거나, 남성 살인 피해자가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핵심인 가부장제와 젠더 권력의 차이를 은폐하는 것과 같다. 문제의 특수성과 원인에 대한 직시 없는 해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성 살해라는 단어는 여성 젠더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 젠더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해왔음을 지적하는, 매우 단순하고 가치중립적인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된 권력구조로 인해 강렬한 정치성을 획득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여성 살해라는 단어를 신속하게 수입한 지역이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 주의 악명 높은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연달아 발생한 여성 살인을 명명하기 위해서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마킬라도라 산업으로 부상한 이 도시에 전국에서 여성 노동자가 유입되었고, 연고 없고 생활여건도 취약한 여성 노동자는 마약 갱단의 인신매매를 비롯한



2016년 10월 19일 산티아고 시위의 문구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죽음은 가부장제의 죽음이다”(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199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도시에
서 400여 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희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후아레스의 참혹한 여성 연쇄 살인은
멕시코 전역에서 여성살해 반대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문제의식에 공감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로도 번져나갔다.

라틴아메리카 여성 살해의 특징 중 하나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경우
처럼 상당수가 조직범죄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
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바하마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으나
미국이 이 경로를 차단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대부분 중미를 통과하게 되
었다. 중미에 마약 갱단이 활개를 치며 여성 대상 범죄 비율이 급증한 것
도 이 시기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망자는 남성이 훨씬 많고, 대부분
은 강력 범죄에 가담하던 중 원한을 사서 살해당한다. 그러나 여성 대상
조직범죄는, 여성이란 갱단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여성혐오적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⁶⁾ 갱단 남성의 여성 가족이나 여자 친

구는 배신을 못하게 만드는 인질이자 협박 대상이며, 흔히 보복 대상으로 살해당한다. 또한, 갱단의 수익 사업인 인신매매를 통해 수많은 여성이 납치되거나 학대에 노출되고 물건처럼 거래된다. 소모품처럼 마약운반원으로 동원되는 여성은 언제든 적발되거나 뱃속에서 마약이 터져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조직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흔히 잔인하게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성기나 가슴 등 여성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를 훼손당한 채 살해당하는데, 이 또한 범죄의 여성혐오적 성격을 시사한다.

그러나 마초 문화는 갱단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높은 여성 살해율을 순전히 조직범죄 탓으로 돌린다면 가정 내 젠더 권력 구조로 인한 폭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 악명 높은 마초문화에 더하여 중남미 많은 국가는 내전을 거치는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조직범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 살해는 일상적 영역, 즉, 남편이나 남자친구, 남성 가족이 자행한다. 2011년의 유엔 통계에 의하면, 남미에서 가장 가정 폭력이 심각한 나라는 볼리비아이며, 5년간(2007년-2011년) 442,000건의 폭력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 오직 96건만 기소되었다. 수많은 미신고 가정 폭력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2010년 UN 보고서에 의하면, 4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아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절반이 여성 배우자나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젠더평등정책고문 마르타 오르도네스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콜롬비아 공무원의 절반은 사생활에서 일어난 일은 사생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32%는 관심이 없으며, 11%는 남편이 취중에 행사한 폭력은 여자가 용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콜롬비아에서 최근 몇 년 간 1년에 100여건 씩 발생하는 여성

6) Mimi Yagoub, 「Why Does Latin America Have the World's Highest Female Murder Rates?」, 『Insight Crime』, 2016.2.11.
(<http://www.insightcrime.org/news-analysis/why-does-latin-america-have-the-world-s-highest-female-murder-rates>).

7) Cedar Attanasio, 「Domestic Violence Laws In Latin America: Can Legislation Curb 'Femicide'?」, 『Latin Times』, 2015.6.4.
(<http://www.latintimes.com/domestic-violence-laws-latin-america-can-legislation-curb-femicide-320801>).

대상 황산 테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서 더욱 충격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성 폭력이 극심한데도 국가는 이를 제대로 처벌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러한 국가와 가부장 사회의 고의적 무관심 앞에서 여성들은 길거리로 쏘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여성들이 외치는 구호 ‘여성 살해는 그만하라’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한 성토이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살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한편, ‘단 한 명도 더 잃을 수 없다’는 연대의 구호이다. 여성을 향한 폭력의 구조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적대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연대하여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016년 5월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강남역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과 경찰은 이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묻지마 살인이 아니다. 그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했을 것이다. 여자가 (감히) 나를 무시했다는 말에는 여자는 남자인 나보다 우월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사건은 여성혐오살인이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살인이나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가 젠더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은폐하고 구조적으로 무력화함을 시사한다. 중남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극심한 여성폭력과 여성살해가 만연한 지역에서조차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여성혐오폭력에 대항하는 싸움은 모든 층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폭력은 존재하는 모든 사회가 공통으로 싸워나가야 할 문제이기에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외침에 관심을 잃지 말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김보영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미주지역학 석사 졸업